

「SIAL China 2009(중국 상해 식품박람회)」 한국관 참가

협회는 한국식품기업의 해외시장 진출확대를 위하여 2009년 5월 19일(화)부터 5월 21일(목)까지 상해 푸둥 국제 엑스포 센터에서 개최되는 「2009년 중국 상해 식품박람회(SIAL China 2009)」에 참가하였습니다. 이번에 개최되는 「SIAL China 2009」는 중국 최대 비즈니스 중심의 국제식품박람회이며, 중국내 식품박람회중 가장 많은 외국업체가 참여하는 행사로써 협회는 국내 식품산업의 위상을 높이고 우수한 국내 식품업체들의 해외시장 개척의 기회를 주고자 참가업체의 경비를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4,000만원 받아 지원했으며, 전시업무, 수출상담 및 기타 다양한 지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박람회 기간동안 '농유공 상해무역관 정운용 지소장'과 '농림수산식품부 박현출 식품산업정책실장' 등 관련인사들이 방문하여 한국관 견학 및 안내를 받았으며, '중국중앙방송(CCTV)'에서는 한국관 참가업체의 촬영 및 인터뷰를 통하여 한국관 및 한국 식품을 중국방송에서 소개하여 주었습니다.

□ 내용요약

- 기 간 : 2009년 5월 19일(화)부터 5월 21일(목)
- 장 소 : 중국 상해 푸둥 국제엑스포전시장
- 전시규모 : 총 1,100개사(60개국)
- 방 문 객 : 약 27,000명(무역 및 비즈니스객, 15%가 외국 참관객)
- 한국관 규모 : 99m²(10개사 11개 부스)
- 참가업체 : (주)동원F&B, (주)일화, (주)정식품, (주)빙그레, (주)다정, 공공
(주)꽃샘식품, 케이비에프(주), 그린합명회사, 톨립인터내셔널(주)

- 전시품목
 - 가공식품 : 인삼제품, 다류(전통차류), 참치캔, 조미김, 두유, 비알콜성 음료, 액상시유, 발효유제품, 아이스크림, 스낵 등
 - 식품소재(첨가물) : 식품첨가물, 시즈닝, 향료, 색소, 라면스프베이스, 향신료
 - 신선농산물 : 버섯류
- 한국관 참가성과
 - 총상담건수 176건, 총상담액 2,580천불
 - 총계약건수 50건, 총계약액 709천불

식품의약품안전청 CEO초청 조찬간담회 참석

협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청 주최의 조찬간담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중국 청도 민간식품검사기관 참여의 의사가 있는 협회 회원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청 윤여표 청장의 '2009년도 하반기 식품안전정책 방향과 중국 청도 민간식품검사기관 설립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 일 시 : 2009년 5월 27일(수) 07:30 ~ 09:00
- 장 소 : 서울프라자호텔 4층 오키드룸
- 참 석 자 : 총 25명
 - 식품의약품안전청 :
 - 윤여표 청장, 최성락 식품안전국장, 김명철 영양정책관, 오혜영 식품기준부장, 서갑중 수입식품과장, 신재식 비서관, 김권수 사무관 등 7명

- 협회 및 회원사 :
 - 협회 박승복 회장, 홍연탁 상근 부회장, (주)농심 손욱 회장, CJ제일제당(주) 김진수 대표이사, 동서식품(주) 이창환 대표이사, (주)동원F&B 김해관 대표이사, (주)오뚜기 이강훈 대표이사, (주)삼립식품 서남석 대표이사, 대상(주) 박성철 대표이사, (주)한국야쿠르트 양기락 대표이사, 크라운·해태그룹 한지영 이사, (주)오리온 이규홍 상무이사, (주)빙그레 박영준 상무이사, 협회 이희덕 연구소장, 김용현 업무이사 등 관련자 총 18명
- 협회 건의사항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개정령(안)중 이물관련 행정처분기준 강화에 대한 처분 기준 완화 건의 (1차: 영업정지 → 시정)
 - 유전자재조합식품의 표시확대에 대한 복합원재료 중량비율 5%미만인 경우 유전자재조합 표시를 제외하고 유전자가 남아있지 않은 유전자재조합식품의 표시는 5년간 유예기간 요청과 유전자재조합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대한 경과조치를 2010년 12월 31일까지 유보 요청
 - 현재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개정 법률에 따른 특정양양성분의 녹, 황, 적 등의 색깔표시 권고 규정시행에 앞서 정부·학계·소비자 및 업계 등 전문가의 참여와 합의를 통한 ‘(가칭)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을 돕는 영양성분 표시제’ 연구를 시행하여 그 결과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합리적인 영양성분 표시제를 마련할 것을 건의함.

미국식음료제조협회(GMA) 로버트 E. 브라켓 수석부회장 일행 협회 방문

미국식음료제조협회(Grocery Manufactures Association, 이하 GMA) 로버트 E. 브라켓 수석 부회장과 주한미국대사관 수잔 필립스 농무관, 헤더 그렐 상무관, 정승아 담당관 등 4명이 5월 26일(화) 본 협회를 방문하였습니다.

이번에 방문한 미국식음료제조협회(GMA)는 미국의 식품, 음료, 소비품목 회사의 연합 협회로서 총 350개의 회원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식품관련 법령 및 다양한 과학적 연구, 정책적 전문성을 갖추고 식품안전, 영양정책, 표기사항 및 생산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美 GMA 회원사의 공공정책을 대변하는 단체입니다.

이날 회의는 협회 3층 회의실에서 진행되었으며, 협회 홍연탁 상근부회장, 김용현 이사 등과 함께 한·미 양국의 식품안전 이슈와 상호 정보교류 및 업무협력에 관하여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 주요내용

가. 어린이기호식품 규제 관련

- GMA는 한국의 어린이식생활 관련 규제가 과학적 사실에 근거(CODEX 기준과의 부합성, 위해성 평가의 객관성)한 소비자 정책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의 의견제시.
- 1) 고열량·저영양식품 기준 및 신호등표시제 관련
 - 협회는 ‘신호등표시제’에 대하여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영양표시를 위한 협회 중심의 자발적 산업계 TF활동 등을 소개함.
 - GMA는 신호등 표시제가 “권고사항”이지만 강제적으로 표시해야하는 우려를 표명.
 - 협회는 어린이식생활특별법 시행령의 “광고제한”조항이 산업계의 적극적인 건의로 현재 유보되었음을 설명함.

2) 타르색소 사용제한 관련

- GMA는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16종의 Tar색소 사용 제한은 국제적 조화가 필요하며, 이러한 규제가 무역장벽이 될 수 있음을 우려함.

나. GMO 표시 관련

- GMA는 전품목 대한 GMO표시 확대가 역시 무역마찰의 소지가 있음을 지적함.
- 협회는 전품목에 대한 GMO 표시 시행 유예기간 요청(5년) 및 복합원재료(5%미만 함량)의 표시예외 등을 건의했음을 설명

더불어, 미국식음료제조협회에서 계획중인 사회적 논의를 위한 협의기구인 'Key Stone Dialogue'와 관련하여 본 협회에서는 공유와 협력을 하기로 하였으며, 특히, 지속적인 정보 등 교류를 위하여 추후 콘소시엄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위해시 인민정부 왕보화 부시장 일행 협회 방문

중국 위해시 인민정부 왕보화 부시장, 박상규 경제고문 등 4명이 5월 29일(금) 본 협회를 방문하였습니다.

이번에 방문한 중국 위해시는 중국대륙의 산둥반도 최동부에 위치하여 지리적으로는 바다가 삼면을 둘러싸고 있으며, 한국과 가장 가까운 도시입니다. 위해시의 대표적인 생산품은 다시마, 굴 등의 수산물과 땅콩, 사과, 배 등 농산물이 있으며, 우수한 품질과 풍부한 생산량을 가지고 있으나, 가공기술이 낙후되어 선진국의 가공기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더불어, 현재 한국의 2,400여개의 업체가 진출하여 약 75%가량이 성공하였다고 합니다.

위해시 왕보화 부시장 일행과의 회의는 협회 3층 회의실에서 협회 박승복 회장, 홍연탁 상근

부회장 등과 함께 위해시와 한국 식품업체의 교류를 위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 주요내용

- 현재 위해시의 질 좋고 풍부한 농수산물의 가공을 위하여 우수한 가공기술의 가진 한국 식품업체의 진출을 희망하고 있으며, 현재 중국의 식품안전문제로 인하여 중국내 한국식품이 높은 신뢰를 받고 있어 한국 식품업체가 진출하기에 좋은 시점임을 설명
- 한국 식품업체의 진출을 위하여 농산물의 위탁재배의 정부차원의 관리·보상 및 공장설립 지원뿐만 아니라, 중국시장에서의 판매도 마케팅 보조할 것임을 설명
- 한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 태국, 유럽 등이 참가하고, 2009년 9월 개최되는 식품안전관리 포럼인「농산물안전관리포럼」에 한국식품업체의 참여를 요청하고, 본 협회를 정식 초청하기로 함.

이와 관련하여 협회는 위해시와 협회간의 대두 등 농산물 위탁재배 가능성에 대하여 위해시는 빠른 시일내로 위해시 서울사무소를 통하여 자료를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GMO식품 표시기준 개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참석

협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유전자재조합식품의 표시기준 개정과 사후관리를 위한 회의에 참석하여 업계의견을 설명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GMO 표시확대의 찬성, 반대, 중도입장의 전문가들이 유전자재조합식품의 표시의 배경, 주요 입고예고(안) 내용과 쟁점사항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표시확대에 따른 수입·유통단계의 사후관리 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가 있었습니다. 특히 GMO식품 표시확대에 따른 문제점과 식용유, 전분당 등 GMO DNA가 남아있지 않은 식품에 대한 사후관리의 어려움 등을 설명하면서 GMO식품 표시확대 추진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줄 것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 주요내용

- 일 자 : 2009년 6월 1일(월)
- 장 소 : 질병관리본부 국제회의실 4층
- 참 석 자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정명섭 단장, 소비자시민모임 황선옥 이사, 경희대학교 최승환 교수, 고려대 이철호 교수, 협회 김용현 업무이사, 내일신문 범현주 기자, 단국대 정윤화 교수 등 총 7명
- 협회 건의내용 : GMO표시에 대해 준비 없는 표시제 확대는 국민 불안과 불신을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사후관리 등의 제도적 미비점을 준비해서 시행하고 사후관리에 근원적 한계가 있는 복합원재료 등에 관한 예외규정을 두어 사회적 파장을 최소화하고 현실적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 복합원재료(2종류 이상의 원재료 또는 성분으로 제조·가공한 식품으로써 다른 식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가 당해 제품의 원재료에 차지하는 중량비율 5%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전자재조합 표시 제외.
 - 유전자가 남아있지 않은 유전자재조합식품의 표시는 충분한 유예기간 부여 (고시시행 후 5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식품 이물 정책 합리적 방안 모색 심포지엄」 개최

협회는 식품음료신문사와 함께 최근 정부가 입법예고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중 이물혼입에 대한 행정규제가 너무 과도하여 식품산업의 경쟁력 약화 및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소지가 있어 합리적 기준 개선을 위한 식품이물정책과 관련한 심포지엄을 2009년 6월 9일(화) aT센터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였습니다.

- 일 시 : 2009년 6월 9일(화) 13:00
 - 장 소 : aT센터 대회의실
 - 주 최 : 식품음료신문사
 - 협회지원 : 1,000만원
 - 참 석 자 : 협회 박승복 회장, 흥연탁 상근부회장, 전문당협회 한종태 회장, 한국급식협회 박홍자 회장, 농수산물유통공사 최창호 식품육성팀 과장, 동원 F&B 김재욱 식품사업부 상무, 해태제과 한지영 연구소장 등 250여명
 - 주제발표
 - 정부의 식품이물정책 방향(보건복지가족부 이재용 과장)
 - 합리적 이물정책(중앙대학교 박기환 교수)
 - 패널토론(좌장 : 전북대학교 신동화 명예교수)
 - 서울여자대학교 노봉수 교수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윤재호 사무관
 - 한국소비생활연구원 박혜영 전문위원
 - 김동환·김시현법률사무소 김시현 변호사
 - 한국식품공업협회 김용현 업무이사
-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가족부는 식품에서 이물이 검출될 경우 당초 입법예고한 영업정지1월과 해당제품폐기(1차), 영업정지3월과 해당제품폐기(2차),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제품폐기(3차)에서 수정안으로 품목제조정지 7일과 해당제품폐기(1차), 품목제조정지 15일과 해당제품폐기(2차), 품목제조정지 1월과 해당제품폐기(3차)로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식품업계는 식품에서 발견되는 '이물'은 위해요소가 아니고 단발성이며 그간 이물 제로화를 위해 막대한 설비와 저감화 및 품질경영 개선에도 노력함을 주장하고 따라서 행정처분 수정안으로 확정될 경우 경영활동의 어려움과 사회 경제 손실 및 국가경쟁력 손실 등 피해가 우려되는바 관련 기관 등에 합리적 기준완화 적용을 위해 적극 건의하고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2009년도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 선정계획 안내

지식경제부는 수출품목의 다양화·고급화와 미래 수출동력 확충을 위해 2001년부터 세계일류상품을 선정, 기술·디자인부터 해외마케팅까지 일괄 지원하는 세계일류상품 육성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협회가 보건산업관련 간사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2009년도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 선정계획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09년도 신규선정 추진계획

- 2009년 선정계획 공고 : 09. 6. 8
- 신청서 접수(보건산업분야 : 한국식품공업협회) : 09. 6. 22 ~ 7. 10
- 추천안 작성 및 추천위 심의 : 09. 7. 13 ~ 8. 14
- 선정안 작성 및 발전심의회 심의 : 09. 8. 17 ~ 9. 30
- 선정결과 확정·공고 : 09. 10월

○ 선정대상

- 세계일류상품

대한민국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로서 현재세계일류상품 또는 차세대세계일류상품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상품

구 분	선정기준
현재일류상품	세계시장점유율 5위 이내에 들고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충족 1. 세계시장규모가 연간 5천만불 이상이고 국내시장규모의 2배 이상 2. 수출규모가 연간 5백만불 이상
차세대일류상품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충족 1. 시장성, 성장성, 경쟁력 등을 평가하여 향후 5년 이내에 세계시장점유율이 5위 이내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상품 2. 신성장동력산업* 품목이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신기술·신제품 인증을 받은 상품으로 미래수출동력 창출에 기여도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상품

* 신성장동력산업 : 식품산업,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에너지, 고도 물처리, LED 응용, 그린수송시스템, 첨단 그린도시, 방송통신융합산업, IT융합시스템, 로봇 응용, 신소재나노 융합, 바이오제약(자원)의료기기 등

-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현재 세계일류상품 또는 차세대세계일류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서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구 분	선정기준
현재일류상품 생산기업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충족 1. 자사가 생산한 상품의 세계시장점유율이 5위 이내인 기업 2. 국내 동종상품 생산업체 중 수출실적이 1위인 기업 3. 수출액이 국내 동종상품 전체 수출액의 30% 이상 차지 기업
차세대일류상품 생산기업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충족 1. 국내 동종상품 생산업체 중 수출실적이 3위 이내인 기업 2. 최근 3년 이내에 신기술·신제품 인증을 받은 기업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상품의 기술, 품질, 디자인 등과 관련하여 국무총리상 이상을 수상한 기업

○ 신청방법 : 신청관련서류 등에 대한 세부내용은 추후 안내예정

※ 자세한 내용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09 불황극복을 위한 제조·유통 상생협력 전진대회’ 참석

2009년 6월 18일(목) 서울프라자호텔 22층 다이아몬드홀에서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한 ‘2009 불황극복을 위한 제조유통 상생협력 전진대회’에 한국식품공업협회 홍연탁 상근부회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이번 전진대회는 올해로 2회째로 지난 2008년에 ‘제1회 상생협력 전진대회’를 통해 상생협력을 다짐하는 자리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2006년부터 ‘제조유통 상생위원회’의 간사기관으로서 제조기업과 유통기업 간의 협력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이번에 개최된 ‘2009 불황극복을 위한 제조유통 상생 협력 전진대회’는 제조유통 간 상생협력 분위기 확산 및 기업 이미지 제고와 협력을 바탕으로 불황극복 및 지속성장을 도모하고자 개최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전진대회에서는 우수기업사례를 통한 보다 폭넓은 정보를 공유하고자 사례발표도 진행되었으며, 제조유통 상생협력 우수사례로 ‘롯데쇼핑(주)-록시땅코리아(유)’, ‘신세계 이마트부문-(주)한일전기MMC’, ‘(주)CJ홈쇼핑-아미케어(주)’ 등을 소개하였습니다.

이날 행사는 오전 10시 30분 개회사를 시작으로 우수기업시상 및 사례발표, 조찬 등 약 3시간동안 진행되었으며, 제조유통상생협의회 위원인 협회 홍연탁 상근부회장 및 홈플러스그룹 이승한 회장, 푸드머스 제환주 대표이사, 샘표식품 박진선 사장, 두산타워(주) 이승범 대표이사 등 제조유통관련 임직원 150여명이 참석하여 불황극복을 위한 제조기업과 유통기업간의 품질 경쟁력과 유통마케팅 협력을 다짐하였습니다.

「이물관련 행정처분 합리화를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협회는 식품기업들의 이물 저감화를 위한 이물 검출 설비투자, 품질 시스템 강화 및 협력사 관리강화 등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술적인 한계로 인하여 불가항력적 이물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개선하고 보다 합리적인 행정처분 기준안을 마련하고자 2009년 6월 18일(목) 협회 3층 회의실에서 「이물관련 행정처분 합리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주)농심 강우석 상무, (주)동원F&B 이용현 상무 등 회원사 임직원 22명과 보건복지가족부 식품정책과 이재용 과장 등 5명 및 협회 김용현 이사 등 총 31명이 참석하여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

법예고(보건복지가족부 공고 제2009-279호)중 「이물관련 행정처분기준」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 일 시 : 2009년 6월 18일(목) 07:30 ~ 09:00
- 장 소 : 협회 3층 회의실
- 참석자 : 총 31명
 - 식품의약품안전청 :
 - 식품정책과 이재용 과장, 식품정책과 박경훈 사무관, 식품정책과 이지선 주무관, 식품정책과 윤소윤 연구위원, 식품관리과 최순곤 사무관 등 5명
 - 협회 및 회원사 :
 - (주)농심 강우석 상무, 이중락 상무, (주)동원F&B 이용현 상무 등 회원사 임직원 22명
 - 협회 김용현 이사, 송성완 부장, 이상욱 차장, 김좌린 과장 등 4명

「2009년 제8차 법령·제도분과위원회」 개최

협회는 2009년 6월 19일(금) 협회 3층 회의실에서 「2009년 제8차 법령·제도분과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법령·제도분과위원회 회의는 식품안전정책 현안논의와 식품업계 위기관리 매뉴얼 최종보고를 위하여 개최되었으며,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청 소관 제도 개선 건의와 「알기쉬운 영양성분표시제」의 검토논의, 이물행정처분(안) 완화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채널 다양화 용역사업인 「이물보고 기준 행정처분 완화 PA(public affair)진행경과」보고 와 「식품업계 공동 식품사고 위기대응매뉴얼」에 대한 용역최종보고 등을 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회의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 최성락 식품안전국장이 참석하여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표시기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이물행정처분」 및 기타사항에 대하여 협회 및 법령·제도분과위원회 위원들과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 일 시 : 2009년 6월 19일(금) 07:30 ~ 10:30
- 장 소 : 협회 3층 회의실
- 참 석 자 : 총 24명
 - 식품의약품안전청 최성락 식품안전국장, CJ제일제당(주) 김창민 상무, 협회 김용현 업무이사 등 24명

농어업선진화위원회 미래성장동력분과위원회 참석

2009년 6월 19일(금) aT센터(양재동)에서 농어업선진화위원회 미래성장동력위원회에 한국식품공업협회 홍연탁 상근부회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농림수산식품분야의 R&D 효율화 추진방안 중 민간역할 재정립 및 민간 R&D 기반확충 논의과정에서

- 기존 농어업분야에 국한된 R&D 지원사업을 식품제조가공 분야에도 지원사업을 확대해서 식품산업을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국내 원료 농수산물의 수요가 확대되어 농어업민과의 상생의 협력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 농림수산식품부 동력분과위원회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특별지시로 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마련중에 있으므로 이를 적극 반영할 것임을 답변하였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가족 테니스 대회 후원 및 참가

협회는 2009년 6월 20일(토)부터 21일(일)까지 경기도 안성시 공설운동장에서 개최된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가족 테니스 대회에 후원 및 참가를 하였습니다. 이번 테니스 대회는

올해로 10회째로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 관련업계와 식품의약품안정청이 한자리에 모여 친목과 상호이해 증진을 위하여 마련되었으며, 이번 대회에는 협회 홍연탁 상근부회장 및 롯데제과, 롯데칠성음료, 남양유업 등 협회와 회원사 임직원 등 총 36개 기관, 54개팀, 350여 명이 참가하여 열띤 경쟁을 벌였습니다.

특히, 단체전 I부에서는 협회 회원사인 롯데칠성음료가 우승하였으며, II부에서는 A리그와 B리그에서 동서식품과 한국네슬레가 각각 준우승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전 장년부에서 협회 홍연탁 상근부회장이 3위에 입상하였습니다.

2009년 7월중 신규식품영업자 교육일정표

일	일	교육시간	교육장소	대상지역	대상업종
7월	2일	09:00-18:00	충북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2층)	충청북도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2일	09:00-16:00	충북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2층)	충청북도	집단급식소 위탁급식영업
	3일	09:00-13:00	충북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2층)	충청북도	소분·판매업등 식품등수입판매업
	6일	14:00-18:00	여의도사학 연금회관(2층)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식품등수입판매업
	8일	09:00-18:00	창원늘푸른전당 (2층 대강당)	경상남도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8일	09:00-16:00	창원늘푸른전당 (2층 대강당)	경상남도	집단급식소 위탁급식영업
	9일	09:00-13:00	창원늘푸른전당 (2층 대강당)	경상남도	소분·판매업등 식품등수입판매업
	14일	09:00-18:00	대전기독교연합 봉사회관2층대강당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14일	09:00-16:00	대전기독교연합 봉사회관2층대강당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집단급식소 위탁급식영업
	15일	09:00-13:00	대전기독교연합 봉사회관2층대강당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소분·판매업등 식품등수입판매업
	21일	09:00-18:00	전주한국소리문화의전당 (국제회의장)	전라북도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21일	09:00-16:00	전주한국소리문화의전당 (국제회의장)	전라북도	집단급식소 위탁급식영업
	22일	09:00-13:00	전주한국소리문화의전당 (국제회의장)	전라북도	소분·판매업등 식품등수입판매업
	27일	14:00-18:00	여의도사학 연금회관(2층)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식품등수입판매업

※ 상기 일정은 현지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기존식품위생교육 일정은 본회 위생교육부(tel : 02-3470-815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 해외박람회 일정표

박람회명	개최국가	기간
2009 북경 식음료 박람회 (FHC Beijing Food & Drink / Retail & Hospitality)	중 국	2009.06.10 ~ 2009.06.12
오사카 라면, 우동, 소바 박람회	일 본	2009.06.16 ~ 2009.06.18
말레이시아 국제식품 박람회 (alaysia international food & beverage trade fair 2009)	말레이시아	2009.07.09 ~ 2009.07.11
인도네시아 식품기술 박람회 (indonesian food technology exhibition 2009)	인도네시아	2009.08.12 ~ 2009.08.15
홍콩식품박람회 (hong kong food expo 2009)	중 국	2009.08.13 ~ 2009.08.17
로스앤젤레스 미서부 식품박람회 (western foodservice & hospitality expo 2009)	미 주	2009.08.30 ~ 2009.09.01
아르헨티나 식품박람회 (sial mercosur 2009)	미 주	2009.09.26 ~ 2009.09.28
퀵콘 식품 박람회 (anuga 2009)	유 럽	2009.10.10 ~ 2009.10.14
일본 요코하마 라면 박람회 (ramen expo 2009)	일 본	2009.10.13 ~ 2009.10.15
동경 식품개발전 (hi / s-tec japan 2009)	일 본	2009.10.14 ~ 2009.10.16
뭄바이 식품 원료 박람회 (food ingredient india 2009)	인 도	2009.10.23 ~ 2009.10.24
북경 국제 식품가공 및 포장기계 박람회 (china foodtech 2009)	중 국	2009.10.27 ~ 2009.10.29
마이애미 식품 및 음료 박람회 (america-s food & beverage show 2009)	미 주	2009.11.09 ~ 2009.11.10
상해 식음료박람회 (fhc china 2009)	중 국	2009.11.18 ~ 2009. 11.20